

# 미국 대도시지역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신이민집단의 사회·경제적 적응양태의 도시별 다양성에 관한 연구\*

권 상 철\*\* · 이 영 민\*\*\*

## Socio-Economic Adaptation of New Immigrant Groups and their Divergence across Large US Metropolitan Areas under Economic Restructuring\*

Sang-Cheol Kwon\*\* · Young-Min Lee\*\*\*

**요약 :** 본 연구는 미국의 대도시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와 신이민집단의 적응양태를 연계시켜 이해하기 위하여,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그리고 애틀란타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취업분포와 거주양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의 산업별 취업분포는 모든 분야에 나타나 대체적으로 전체인구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소매업에서 비교적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거주집중지역은 도심 주변과 더불어 외곽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유럽계 이민집단이 제조업에 편중적으로 고용되고 도심 주변에 거주지를 집중시키던 적응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신이민집단의 적응양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착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와 이에 따른 공간상의 변화 그리고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관점에 기초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산업재구조화, 신이민집단, 취업분포, 주거집중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new immigrants' socio-economic adaptation by linking them with the restructuring economies in large US metropolitan areas. Selecting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and Atlanta, we examine the industrial distribution of employed Hispanic and Asian immigrant groups with respect to the industrial change experienced between 1980 and 1990, and residential concentration represented by higher location quotients. The findings are that new immigrant groups are employed in overall industrial sectors close to that of total population and their large residential concentrations are displayed near downtown as well as outlying areas. These suggest that new immigrant groups experience different socio-economic adaptation from those generalized in the previous European immigrants,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sector and near downtown area. This study proposes that divergent economic restructuring across metropolitan areas and new immigrants' backgrounds should be consider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immigrants' economic adaptation in the current economic restructuring and its spatial manifestation in the US contexts.

**Key Words:** economic restructuring, new immigrant groups, employment pattern, residential segregation

### 1. 서 론

미국은 최근에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산업재구조화의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공간구조

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산업재구조화와 맞물려 증가하는 이민집단의 공간적 집중이 또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며,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도시내 이민집단의 적응양식에 관한 관심이 증

\* 본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해외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전공 전임강사(Full-time Instructor, Dept. of Social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연구원(Post-doc, Fellow,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도시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와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신이민 집단의 경제적 적응과 주거 적응의 양태를 연계시켜 개관해 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산업재구조화와 이민집단의 적응양식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도시지역간 비교연구의 경우도 경제적인 특성에 한정된 논의가 주축을 이뤄 주거양식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Ettlinger and Kwon, 1994; Ortiz, 1991). 본 연구는 미국 주요 대도시지역에서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재구조화를 배경으로 주요 이민집단의 경제적응양식과 거주특성을 주요 도시별로 고찰하고 서로 관련시켜 이해함으로써 지역별, 집단별 다양성을 노정시켜 보려 한다. 특히 지역별로 나타날 공통점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의 취업분야와 주거양상을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분야별 변화와 지리공간상의 변화를 연계시켜 개관해 보고자 한다.

미국사회의 기존 유류계 이민집단의 유입은 유입국의 제조업 팽창에 따른 노동력 수요에 부응하여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농촌배경의 동질적인 값싼 노동력의 제공이라는 틀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1965년 이민법 수정<sup>1)</sup> 이후의 이민은 대다수 중남미와 동양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집단간 그리고 집단내의 다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신이민집단의 적응양식은 산업재구조화를 경험하고 있는 정착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탈산업화 또는 후기산업사회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는 도시지역에 나타나는 공통점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이민집단의 적응양식에 대한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별 다양성을 간과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하는데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재구조화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민집단의 경제적, 공간적 적응도 이에 맞물려 지역적으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을 지역맥락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으로는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그리고 애틀란타를 선정하였다. 로스엔젤레스

와 뉴욕은 동부와 서부의 가장 큰 거대도시지역으로 다양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는 이민집단의 적응에 관한 많은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서부의 공업도시 특성을 반영하리라고 기대되는 시카고는 산업화와 더불어 초기 유류계 이민집단들의 주요 정착지로 도시생태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근간의 후기산업화 과정과 신이민집단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기울여 지지 않고 있다. 애틀란타는 남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선정되었는데, 최근 들어 경제부흥, 올림픽유치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다. 연구대상 이민집단으로는 중남미계와 동양계를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1965년의 새이민법의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새로운 하위 집단(minority group)<sup>2)</sup>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료는 산업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카운티사업형태(County Business Pattern)를 사용하였다. 이는 매년 출간되는 자료이나 1980년과 1990년 자료를 사용하여 매 10년 단위로 출간되는 인구센서스 자료와 일치시켰다. 로스엔젤레스를 제외한 대도시 지역은 대도시지역의 경계가 변하여서 양 연도에 공통으로 포함된 카운티만을 고려하였다. 이민자들의 특성과 산업분포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1990년 5퍼센트 상세인구조사표본(Public Use Microdata Samples)<sup>3)</sup>을 사용하였고, 주거집중의 경우 1990년 인구센서스(Census of Population) 자료를 활용하여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입지계수를 계산하고 지도화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재구조화와 지리공간상의 변화를 요약하고 이민집단의 취업, 주거 적응에 관한 기존의 정형을 이와 관련시켜 평가해 보고, 둘째 선정된 대도시지역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주요 집단별 인구변화 그리고 산업분야별 취업변화로 산업재구조화의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이에 따른 이민집단의 취업분야와 주거양태를 도시지역별로 분석하여 공통점과 더불어 다양성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신이민집단의 적응양식을 산업재구조화와 연계시켜 요약해 보고자 한다.

## 2. 산업재구조화와 이민집단

후기산업사회로 이행되어 가는 미국의 경제변화는 어떠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보더라도 지역공간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재구조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탈산업화, 서비스산업화,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로의 전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별로 산업분야의 차별적 성장·감소로 표출되고 있으며, 결국 지역경제의 다양성은 산업화시대보다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재구조화의 상황이 미국 대도시지역에서 어떻게 이민집단의 적응양식과 상호 연계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춘 경우, 이민집단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기 위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단순화되어 이해되거나, 이민집단의 적응양식에 초점을 맞춘 경우, 그들의 개인 또는 집단의 속성 내지는 적응전략 차원에 대한 관심이 주종을 이루어 정착지역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간과되고 있다(Noyelle and Stanback, 1984; Portes and Rumbaut, 1988).

### 1) 산업재구조화의 지역적 전개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제조업의 급속한 발달로 산업사회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산업화시대의 특징은 규격화된 소비재 생산, 조립생산라인과 노동분업에 기초한 대량생산 및 소비 증대를 위한 복지정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Arbrechts and Swyngedouw, 1989; Piore and Sabel, 1984). 규격화된 대량생산을 통한 산업사회의 고도성장은 지리적으로 오대호 주변에서 북동부연안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공업지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대량생산방식은 내구 소비재의 과잉생산 그리고 저소비의 경향과 더불어 기업의 이윤을 하락을 가져옴으로써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미국 산업사회의 위기는 외계적으로 유사한 기술수준의 발달 과정을 겪게 되는 선진국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초래되었으며, 내재적으로는 과잉 공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산업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미국경제는 서비스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증대되어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산업재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여러 척도에서 설명되어 지는데, 미국 내부의 시장통합과 경제구조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시장규모의 성장이 이루어지며 제조업의 입지를 기존 중심지역으로부터 국외, 국내,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기업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간 또는 국가간의 장벽을 극복하며 확대된 시장규모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춘 대기업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관리·통제를 위한 중심성이 더욱 필요시 되어 그 기능들이 기존의 산업도시에 집중되어 나타나게 된다(Dicken, 1992; Sassen, 1988). 서비스기능의 증대는 거대한 시장의 관리와 더불어 외부화된 생산시설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사무기능의 확대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대도시지역의 산업기반이었던 제조업이 위축되는 대신 서비스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도시의 취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분야의 감소와 더불어 서비스 분야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eauregard, 1991; Noyelle and Stanback, 1984). 거대도시지역의 경우 서비스 분야의 성장은 보다 뚜렷이 나타나, 법률, 엔지니어링, 회계 관련의 전문서비스업 그리고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도시(global city)로 자리매김한 뉴욕, 로스엔젤레스와 같은 거대도시지역의 경우 외국자본의 유입 또한 그러한 추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Sassen, 1988). 전문서비스와 사업자서비스의 증가는 기업의 조직효율화와도 맞물려 기존의 내재화되어 있던 기능들을 외부에 하청을 주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소규모 서비스 업종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가 산업재구조화의 가장 보편적인 변화로 나타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특정의 제조업 분야는 생산방식의 변화와 함께 오히려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빠른 디자인-상품회전이 요구되는 의류나 전자제품은 소규모 하청을 통한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사무업과 고임금 노동력의 확대에 따른 세탁업, 배달서비스와 같은 개인서비스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assen, 1988; Waldinger, 1996).

이러한 미국의 산업재구조화는 대도시 지역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 차별적인 지리공간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선 국가적 규모에서 기존의 북동부 공업지대와 기타의 비공업지대의 지역구도를 변화시켜 스노우벨트 대 썬벨트(snowbelt vs. sunbelt)라는 새로운 지리공간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기존의 북동부지역은 제조업의 감소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으로 “녹슨지대(rustbelt)”라는 은유에서도 풍기듯이 경기의 하강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반면 비교적 양호한 기업환경을 가진 남부와 서부지역의 경우 북동부지역으로부터 제조업이 유입되고 새로운 창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북부 거대도시지역의 경우는 입지적 우월성과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 중심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뉴욕의 경우 새로운 서비스 중심지로의 부상이 거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제조업으로 특화되었던 도시, 예를 들면 디트로이트나 피츠버그 등은 제조업 감소의 충격이 상당하였지만 서비스 중심지로의 전이를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Sbragia, 1989). 이러한 여러 도시들의 경제 발전 내지 산업재구조화의 노력은 기존 북부-남부의 거시적 지역구도를 변화시켜 개별 도시들간의 성장과 쇠퇴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변화는 후기 산업화 사회에서 추구되는 복지국가에서 기업가적 정부로의 전환과 더불어 더욱 치열해진 지역간 경쟁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Gaffikin and Warf, 1993).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지역간의 공간변화와 더불어 대도시지역내의 변화도 뚜렷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기반이 강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교외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심화 또는 집중화하는 성향을 보이며 대도시지역내의 지리공간을 재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구조화와 지리공간상의 변화는 지역주민에게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산업분야의 변화에서 제조업의 감소와 전문서비스업종의 증가는 기존 도심에서의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에게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며, 이를 대신하여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업종은 잠재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되어 “기술불일치(skill mismatch)”문제가 생겨나고 있다(Johnson and Oliver, 1992; Kasarda, 1989). 또한 외곽화되는 일자리는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여 저급노동자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지만, 주로 도심 주변에 거주하는 저숙련노동자들은 거리장애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워 외곽의 노동자 부족과 도시내부의 취업기회 부족의 “공간불일치(spatial mismatch)”문제가 야기되고 있다(McLafferty and Preston, 1992). 도시내부에서는 이러한 산업재구조화에 따라 고학력/기술과 저학력/기술로 노동력의 분화가 심화되어 인종·민족집단의 구분이 심화되는 이중화된 도시(dual city)로 변모해 가고 있다(Henry, 1994; Soja, 1991). 도시중심부에서는 전문직 업종을 위한 사무실 공간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 그러한 업종에 종사할 고급인력의 거주공간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직 노동력은 상당히 높은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양질의 거주공간을 선호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도심 주변에 고급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기존의 도심 주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제조공장과 공장노동자들의 거주지, 그리고 사무업종과 사무노동자들의 고급주거지 수요간의 경쟁이 도심경관을 변모시키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산업재구조화는 기존 제조업 분야의 감소와 생산방식의 변화, 서비스업종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지리공간의 재구성으로 지역별 그리고 국지적으로 성장 또는 쇠퇴하는 지역으로 대조를 이루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 이민집단의 적응양식과 대도시지역 집중

1965년의 미국 이민법 수정은 이민자 수의 급증을 초래하였으며, 그 구성 면에서도 중남미계와 동양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전의 유럽 중심 이민집단의 구성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

다. 이들 새로운 이민집단은 몇몇의 대도시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도시구조를 변모시키고 있다.

기존 이민집단의 적응양식에 관한 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집단속성의 측면에서는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고 농촌배경의 이민자들이며 낮은 임금의 하위 취업기회에 충당되는 값싼 노동력이라는 관점, 즉 이민집단의 열등한 개인적 속성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땅에서의 적응양식을 설명하려는 관점이다. 둘째, 정착지역의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 증대가 언급되었다. 정착 이후 이민자 개인 혹은 이민집단 전체의 더딘 경제적 상승은 기존 모국 문화의 습성에 얽매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노력이 부족하여(victim blaming) 야기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들은 이민집단이 적응하는 노동시장이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육, 기술수준, 작업경험 등과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함양은 주류문화로의 동화의 선결 조건이고, 따라서 경제적 상승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적 상승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지던 미국사회로의 동화(assimilation)는 기존 산업화 과정에서 유입된 유럽계 이민집단의 적응양식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최근의 신이민집단의 적응양식은 동화의 단일 방식보다는 다양한 적응양식을 보이고 있다. 신이민집단의 독특한 적응양식은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이라는 미국도시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즉, 이중 노동시장이 이민집단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귀착시켜 경제적 상승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되었다(Morawska, 1990).

이민집단의 도시내 거주지 형성에 관한 기존의 모델도 그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 왔다. 이민집단의 주거지는 도심에 취업기회가 다수 분포하는 산업사회의 공간구조적 특징에 따라 주거비가 저렴한 도심 주변에 집중하며, 백인 주류문화에의 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주거지도 외곽으로 이주하여 분산의 양상을 보인다고 일반화되어 왔다(Hernandez, 1985). 거주분리지수(residential segregation index)는 바로 이민집단의 공간적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써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단순히 집중거주의 정도뿐 아니라 이민집단의 동화 정도를 가늠하기도 하였다. 즉, 높은 격리지수는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Howenstine, 1996; Clark, 1996).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는 기술력이 없는 값싼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키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신이민집단은 이러한 저급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민자들이 기존의 하위집단(minority group)인 흑인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 대치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반대감정이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Espenshade and Hempstead, 1996).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산업사회 대도시의 노동력 과잉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왜 대도시지역으로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우선 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새 이민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 전체의 이민자들 중 56퍼센트가 10순위 내의 대도시지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이들 도시지역은 산업재구조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신이민집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에, 산업재구조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

표1. 대도시 지역의 이민자 수용

대도시지역	1965-80	이민자	불법 이민자	이민자
미국전체	7368	100.0%	2057	100.0%
100순위대도시지역	6369	86.4%	NA	NA
10순위대도시지역	4128	56.0%	1371	68.0%
로스엔젤레스	1165	15.8%	685	9.2%
뉴욕	1060	14.4%	212	2.3%
마이애미	445	6.0%	50	3.1%
시카고	405	5.5%	127	1.8%
샌프란시스코	288	3.9%	56	1.7%
워싱턴	168	2.3%	70	2.3%
안하임	167	2.3%	79	4.1%
휴스턴	167	2.3%	52	1.8%
샌디에고	142	1.9%	50	2.7%
보스턴	121	1.6%	17	0.0%

출처: Waldinger (1989)에서 인용

리공간의 재구조화와 맞물린 이민집단의 적응양태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이민집단의 경제적인 적응의 토대와 관련하여 제조업 분야의 쇠퇴와 서비스업분야의 증가로 대표되는 산업 재구조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가 논의될 수 있다. 즉 성장 추세의 서비스업이 이민노동력을 필요로 하여 흡입을 할 것이며, 감소 추세의 제조업 또한 기존의 위치에서 이윤율을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값싼 이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하청생산방식을 생존전략으로 도입함으로써 노동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Sassen, 1988; Scott, 1996). 제조업의 경우 전통적인 관점에서 논의된 값싼 이민 노동력의 흡수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에의 흡수는 이민자의 속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근간의 이민집단들의 속성은 이전의 유럽계 이민자들의 속성으로 일반화된 낮은 교육수준과 농촌배경과는 다르게 이중성(bimodal)을 보인다. 즉, 이민자들이 집단간 그리고 집단 내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부류와 높은 수준의 부류로 구별지어 진다는 것이다(Kanjanapan, 1995; Portes and Rumbaut, 1990).

서비스업 분야의 확대는 이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을 야기하여 신이민집단을 유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이는 주거양상에 있어 제조업의 생산방식 변모, 외곽화와 더불어 도심과 외곽지역에 정착케하는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재구조화와 이민집단의 다양성은 기존의 적응양식에 관한 일반화된 정형을 보다 진전시킬 필요성을 제기한다.

### 3. 선정된 대도시지역의 인구 및 산업의 변화

#### 1) 인구구성의 변화

선정된 대도시지역의 인구변화를 주요 인종·민족집단으로 구분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인구규모를 보면 1980년에는 뉴욕이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나 낮은 증가율로 인해, 1990년 현재는 로스앤젤레스가 886만 명으로 1위, 다음으로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는 0.2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여 정체된 인구규모를 보이고, 애틀란타의 경우 32.8퍼센트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임을 보여준다.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란타의 인구증가율 차이는 스노우벨트와 선벨트의 대조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요 인종·민족집단인 백인, 흑인, 동양·태평양군도계,<sup>4)</sup> 중남미계로 구분하여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백인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에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뉴욕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9.4%)을 보이고 있다. 애틀란타의 경우 높은 인구증가율과 유사하게 백인의 증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흑인의 경우 시카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애틀란타의 41.2퍼센트를 선두로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이민집단인 중남미계와 동양계는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백인이나 흑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경우 동양계의 증가가 약 1.2배로 나타나 중남미계 증가인 60퍼센트, 25.8퍼센트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이들이 동양계 이민자들의 주요 정착지임을 시사하고 있다. 시카고는 백인과 흑인 인구의 감소에 따라 선정된 지역 중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에서의 동양계와 중남미계의 증가는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낮지만 다른 이민집단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애틀란타의 경우 1980년 동양계는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대도시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동양·태평양군도계의 경우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중남미계 또한 약 1.3배 증가하면서 민족집단의 다양성이 이전 보다 훨씬 증가하여 집단간 경합과 갈등이라는 새로운 도시적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Rutheiser, 1996).

이러한 다양한 인종·민족집단별 인구증가의 차이는 대도시지역의 인구구성비에도 차이를 만들어 내어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기존 다수(majority)와 소수(minority)집단이라는 용어가 어색해 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인의 경우 인구구성비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

며 흑인은 로스엔젤레스, 시카고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뉴욕과 애틀란타에서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양계의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나 구성비가 대략 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중남미계도 모든 도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계는 로스엔젤레스에서 1990년에 이미 절대수에 있어서 흑인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뉴욕에서도 흑인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많은 대도시지역에서 2000년에는 하위 집단들이 백인보다 다수를 점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O'Hare, 1992).<sup>5)</sup>

## 2) 대도시지역 산업변화

산업변화는 인구변화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관점을 견지하여 선정된 4개 대도시지역의 모든 산업분야를 포괄적으로 살펴본 후 도시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선정된 대도시지역의 1980년과 1990년 사이의 산업변화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산업분야는 제조업의 경우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서비스업의 경우 개인, 사업, 전문으로 세분하여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내구재 분야,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자제품 등과 같은 분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방식의 적용으로 봉제업과 같은 비내구재 분야의 경우 비교적 낮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분야 중 전문서비스는 거대도시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과 사업서비스 분야 또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우선 총취업자 수의 변화를 보면, 애틀란타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여 성장하는 남부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틀란타와 더불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는 로스엔젤레스로써 뉴욕과 시카고에 비해 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산업분야별 증감율을 보면, 우선 제조업의 경우 애틀란타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급격한 감소는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카고가 뒤를 잇고 있다. 애틀란타의 경우 제조업의 증가는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찾아 북동부에 입지했던 기업들의 이주와 이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야기된 현상이라 하겠다(Rutheiser, 1996). 내구재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는 기존 산업중심지였던 시카고이고 그 다음이 뉴욕이다. 비내구재의 경우 로스엔젤레스와 애틀란타에서 증가를 보이는데 애틀란타의 경우 양호한 기업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화에 관

표 2. 선정된 대도시 지역의 주요 인종·민족집단별 인구변화, 1980-1990

인종·민족집단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1980	1990	%변화	1980	1990	%변화	1980	1990	%변화	1980	1990	%변화
전체	7477503	8863164	18.5	8274961	8546846	3.3	6060387	6069974	0.2	2029710	2695480	32.8
백인	5073617	5044718	-0.6	5332663	4832376	-9.4	4282300	4102292	-4.2	1508640	1915854	27.0
	67.9	56.9		64.4	56.5		70.7	67.6		74.3	71.1	
흑인	943968	990406	4.9	1907585	2254576	18.2	1354381	1330636	-1.8	498826	704073	41.2
	12.6	11.2		23.1	26.4		22.3	21.9		24.6	26.1	
동양·태평양군도계	434850	955329	119.7	251307	553987	120.4	130819	229475	75.4	11751	49503	321.3
	5.8	10.8		3.0	6.5		2.2	3.8		0.6	1.8	
중남미계	2066103	3306116	60.0	1464634	1842127	25.8	519649	716644	37.9	23386	53556	129.0
	27.6	37.3		17.7	21.6		8.6	11.8		1.2	2.0	

1. 선정된 대도시지역의 범위는 1980-1990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1980년 경계를 기준 하였음.

2. 남미계는 인종구분(백인, 흑인, 동양·태평양군도계)과 배타적이 아님.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1983a, 1993a)

한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하청을 통한 컴퓨터와 같은 첨단분야나 봉제업의 증가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야가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아직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Scott, 1996; Waldinger, 1996).

서비스업의 경우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애틀란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문서비스, 예를 들면 법률, 회계, 기술분야의 업종은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의 경우에만 영화, 세탁업의 증대에 힘입어 개인서비스가 전문서비스보다 약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와 더불어 뉴욕에서도 개인서비스의 증가율이 다른 서비스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소득자의 수요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사업자서비스, 예를 들면 광고, 컴퓨터 업종 등은 애틀란타와 시카고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융·보험의 경우 전문

기능으로 서비스업종과 유사하게 애틀란타와 로스엔젤레스에서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경제기반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로 도시경제의 총취업기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분야의 변화 또한 도시별로 비중을 달리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건설업은 전반적으로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뉴욕과 시카고에서는 전체 취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 전체 취업 증가율을 능가하는 분야로는 시카고의 경우 도매업과 운송·공기반분야 등이며, 애틀란타의 경우 소매업 분야에서 전체 증가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시성장에 따른 외곽지역 쇼핑물의 증가를 반영한다 하겠다(Hartshorn and Muller, 1989). 뉴욕,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시카고에서 공통적으로 도매업이 전체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도시들이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무역기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미국 대도시지역들이 앞에서

표 3. 선정된 대도시 지역의 주요 산업분야의 변화, 1980-1990

산업분야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1980	1990	%변화	1980	1990	%변화	1980	1990	%변화	1980	1990	%변화
총취업자수	3184578	3847918	20.8	3282893	3633742	10.7	2616584	2895081	10.6	810760	1319513	62.8
농·어업	19829	24342	22.8	8635	10527	21.9	7014	10753	53.3	3708	8384	126.1
건설업	139204	166208	19.4	99134	141661	42.9	113772	129900	14.2	55553	77255	39.1
제조업	964761	875837	-9.2	659712	441016	-33.2	771463	577462	-25.2	150404	177302	17.9
내구재	630510	544555	-13.6	178852	108243	-39.5	782979	313857	-59.9	63753	73708	15.6
비내구재	298570	304121	1.9	376335	267939	-28.8	229855	217767	-5.3	65049	71387	9.7
운송/공기반	189591	225968	19.2	276480	263549	-4.7	159842	193135	20.8	82590	131334	59.0
도매업	244839	308907	26.2	172273	273301	58.6	223356	262473	17.5	90461	135458	49.7
소매업	532703	648262	21.7	433678	479397	10.5	426472	528445	23.9	161751	281899	74.3
금융·보험	253572	305324	20.4	503479	568911	13.0	273603	277211	1.3	68068	108996	60.1
서비스	815283	1281394	57.2	1008273	1447534	43.6	641062	915702	42.8	190817	389832	104.3
개인	160263	269930	68.4	122758	156269	27.5	70499	78098	10.8	18801	33380	77.5
사업	231149	317109	37.2	288097	324476	12.6	173648	245555	41.4	58999	127069	115.4
전문	409885	677487	65.3	577974	944903	63.5	221866	535385	141.3	89388	198157	121.7

1. 각 분야의 구분이 안된 경우는 제외되어 제시된 취업자의 합계는 총취업자수보다 적게 나타남.
2. 세부적인 분류에서 범위로 표시된 항목은 평균값으로 대치하였음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1983b, 1993b)



언급한 것과 같은 산업재구조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민집단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형태로 적응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 4. 신이민집단의 취업 및 주거 특성

이민집단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이민집단의 특성을 개관해 보고 위에서 살펴본 산업재구조화 상황에 어떠한 형태로 적응하고 있는가를 취업분포와 주거양상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조업이 이민집단의 취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심 주변에 집중거주한다는 유럽계 이민집단의 경험에서 도출된 정형을, 변화하고 있는 산업·공간구조와 신이민집단의 증가에 비추어 재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라 하겠다.

선정된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중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의 특성을 이민연도, 교육수준, 영어사용능력, 취업구분, 그리고 통근소요시간으로 구별지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선 1965년 이후 이민자의 비율을 보면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5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동양계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 모든 지역에서 75퍼센트 이상이 1965년 이후에 이민 온 신이민집단이다.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특성을 인적자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두 집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계 이민집단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동양계의 경우는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교육수준의 이종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민집단 전체를 획일화하여 언급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양계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도 10퍼

표 4. 선정된 대도시지역 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의 특성

특성 변수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중남미계	동양계	중남미계	동양계	중남미계	동양계	중남미계	동양계
이민연도 (%)								
미국출생	29.1	18.9	25.5	7.4	29.2	11.1	32.5	5.8
1950-1965	6.2	4.7	19.0	5.2	10.5	4.2	11.0	3.8
1965 이후	64.7	76.4	55.4	87.4	60.3	84.6	56.5	90.4
교육수준 (%)								
-- 중학교	31.1	5.0	17.3	12.4	28.8	4.1	17.7	9.3
-- 고등학교	43.5	23.5	48.6	30.3	43.1	21.1	35.5	31.0
-- 대학교	23.5	59.7	30.2	43.4	25.2	55.4	39.0	42.5
대학원 --	2.0	11.8	3.8	13.9	2.9	19.5	7.8	17.2
영어사용능력 (%)								
전무	13.1	2.4	7.4	8.1	7.9	2.3	8.0	2.2
보통	26.1	15.6	19.5	22.0	23.6	11.6	22.0	21.5
양호	60.7	82.1	73.1	69.8	68.6	86.1	70.0	76.3
통근소요시간 (분)	25	26	35	36	28	28	25	23
취업구분 (%)								
임금	93.4	86.0	94.1	88.3	96.1	89.3	91.4	84.8
자영	6.6	14.0	5.9	11.7	3.9	10.7	8.6	15.2
전체 표본수	68006	22259	26606	11539	12205	4810	1063	1020

위의 수치는 1990년 대도시지역구분에 따른 것이며, 5퍼센트 표본조사의 내용임

센트를 상회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기존 유럽계 이민 노동력의 정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어사용능력도 대다수 양호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의 적응력이 상당히 높다 할 수 있다. 통근소요시간은 대략 30분 전후로 직장과 주거지와 거리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취업 구분에서 나타난 자영업 비율을 보면, 동양계의 경우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10퍼센트 이상을 보여 자영업이 이들 집단에게 새로운 경제적응방식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Portes and Rumbaut, 1990; Yoon, 1995).<sup>6)</sup>

이러한 이민집단의 속성은 위에서 살펴본 산업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지리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대도시지역별로 나타날 이민집단의 산업분야별 취업과 주거양태를 이해하는데 배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신이민집단의 취업분포

1990년 현재 각 도시지역의 산업분야별 구성비

와 중남미계 및 동양계의 분포를 요약해 보면 표 5와 같다.<sup>7)</sup> 1990년 현재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가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3에서 살펴본 대도시지역의 산업변화,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카고의 경우 제조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로스엔젤레스는 비교적 높은 비율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도시로서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애틀란타의 경우 1990년 현재의 제조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조업의 증가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후기산업화의 과정으로 들어선 다른 대도시의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모든 도시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 현재의 산업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부각되고 있다. 뉴욕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서비스중심도시로서의 성격을 나타내

표 5. 1990년 대도시 산업분야와 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의 분야별 분포

산업분야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전체	중남미계	동양계	전체	중남미계	동양계	전체	중남미계	동양계	전체	중남미계	동양계
농·어업	0.6	3.2	0.6	0.3	0.6	0.2	0.4	2.8	0.1	0.6	3.2	0.3
건설업	4.3	8.7	2.9	3.9	5.5	2.9	6.6	5.3	1.6	5.9	24.8	3.2
제조업	22.8	33.7	19.2	12.2	21.7	17.6	19.9	41.9	20.2	13.5	12.6	18.2
내구재	14.2	18.1	11.4	3.0	10.5	4.4	10.8	25.6	12.8	5.6	6.1	11.4
비내구재	7.9	15.6	7.8	7.4	11.2	13.2	7.5	16.3	7.4	5.4	6.5	6.9
운송/공공기반	5.9	3.7	6.2	7.3	7.2	7.0	6.7	4.1	5.7	10.0	5.3	4.1
도매업	8.1	5.3	6.8	7.5	4.3	5.5	9.1	5.8	5.6	10.3	4.4	6.5
소매업	16.9	18.1	20.2	13.2	20.6	24.4	18.0	18.3	18.1	21.5	21.4	29.2
금융·보험	8.0	2.8	10.6	15.7	7.2	10.3	9.6	2.4	7.7	8.3	4.2	4.6
서비스	33.4	24.5	33.5	39.9	32.9	32.2	31.6	19.3	41.0	29.7	24.1	33.8
개인	17.1	8.2	5.6	4.3	8.3	5.9	2.7	5.4	5.8	2.5	6.6	8.7
사업	8.3	7.6	5.3	8.9	8.1	4.4	8.5	4.8	4.6	9.7	6.3	7.6
전문	17.7	8.7	22.6	26.1	16.5	21.9	18.5	9.1	30.6	15.1	11.2	17.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남미계와 동양계는 1965년 이후 이민은 사람만 선정하였음.이들이 전체 중남미계, 동양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 4의 이민연도 항목과 전체 표본수를 참조.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1993c)로부터 계산된 수치임.

고 있으며, 애틀란타의 경우 가장 빠른 서비스업 증가를 보이나 현재의 비중은 여타의 도시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애틀란타는 전체 산업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경제중흥기라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은 금융·보험 분야와 더불어 시카고, 애틀란타와는 구별되는 세계도시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소매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애틀란타의 경우 운송과 도.소매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남부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성과 산업변화에 맞물려 1965년 이후 중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의 경제적 적응양식은 지역맥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집단들이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모든 대도시지역에 걸쳐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소매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 집단별로 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에서 중남미계는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시카고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여 전통적으로 시카고의 제조업 분야가 중남미계 이민을 끌어들

이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Betancur et al., 1993). 동양계는 뉴욕과 애틀란타에서만 제조업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소매업에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중남미계와 구별되는 특성이다.

반면 중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 모두는 뉴욕과 로스엔젤레스에서 금융·보험과 서비스 분야에 낮은 취업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종·민족집단간의 노동분화(ethnic division of labor)가 이민집단의 취업기회를 규정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Scott, 1996; Waldinger, 1996). 그러나 도시별로 특정분야에서 나타나는 집단별 집중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도시별 전체 취업자들의 산업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산업기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전문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취업하고 있어 이민집단의 경제적 적응은 대도시지역의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신이민집단의 주거집중

이민집단의 주거특성에 대한 관심은 상위 집단인 백인과의 거주분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관심

표 6. 동양계와 중남미계의 입지계수와 센서스구역(Census Tract)의 수

입지계수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중남미계	동양계	중남미계	동양계	중남미계	동양계	중남미계	동양계
10-				6		8		4
9-10				2	7	3		
8-9			1	1	22		1	
7-8		3	2	9	20	6	2	1
6-7		8	7	20	37	11	3	3
5-6		9	40	26	28	14	1	8
4-5		33	57	38	33	27	6	4
3-4	37	59	131	70	56	44	10	8
Tract의 합	37	112	238	172	203	113	27	24
전체 Tract수	1647		2455		1479		452	

중남미계의 경우 멕시코계, 푸에르토리코계와 큐바계, 동양계의 경우 일본계, 중국계, 필리핀계, 한국계, 인도계, 그리고 베트남계만을 포함하였음.

출처: US Bureau of the Census (1993c)에서 계산된 수치임.

이 집중되어 왔으며, 거주격리의 정도가 낮아지면 동화가 진척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하지만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도시공간의 재편성에 비추어 볼 때, 집중된 주거양식은 단순한 병리현상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족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동족경제를 형성하며 고용과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생산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으로도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재구조화에 따라 도시 외곽에 형성되고 있는 취업기회를 찾아 곧바로 외곽에 집중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동화과정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주거지 집중을 센서스구역(census tract)별로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sup>8)</sup>로 나타내고, 이를 지도화하여 주거 특성을 살펴보았다. 각 대도시별 집중도를 개관하기 위하여 입지계수가 3 이상인 센서스구역의 수를 중남미계와 동양계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입지계수가 10 이상인 높은 주거집중도를 보이는 센서스구역은 시카고에서 8개, 뉴욕에서 6개, 애틀란타에서 4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집중도를 보여 입지계수 8이상의 센서스구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민집단별로는 시카고와 뉴욕의 높은 집중도는 동양계에서 나타나고 애틀란타의 경우 중남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입지계수가 3 이상인 센서스구역의 합을 비교해 보면, 로스엔젤레스를 제외한 대도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남미계가, 그리고 로스엔젤레스의 경우 동양계가 집중된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선정된 4개 도시의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주거집중지역을 세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계산된 입지계수를 지도화하면 그림 1에서 4와 같다. 이들 지도로부터 두 이민집단의 주요 집중지역과 입지계수로 나타난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 대도시지역(그림 1): 중남미계와 동양계가 인접하여 큰 규모의 주거 집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중남미계는 도심에서 동쪽으로 확장하며 넓은 지역에 집중하고 외곽에 소규모의 집중지역이 나타난다. 동로스엔젤레스(East Los Angeles)로 알려진 중남미계의 주요 집중지역은 로스엔젤레스시(Los Angeles City)에서 외곽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가장 큰 배리오(barrio: 스페인어 통용지역)<sup>9)</sup>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20년대부터 멕시코계가 거주하기 시작하여 지배적인 집단으로 등장하였으며,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Moore and Vigil, 1996). 다른 중남미계 집중지역은 세군데에서 발견되는데,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자딘, 남동부의 로우랜드 하이츠, 그리고 북서부의 산페르난도 벨리 등이 그것이다. 산페르난도 벨리 지역의 경우 본래 백인지역의 고급 주택가이나 이들과 더불어 중남미계의 가정부나 보육부가 다수 거주하여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Allen and Turner, 1996). 남동부의 로우랜드 하이츠 지역은 교외의 부촌으로서 중산층의 멕시코계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동양계 집중지역은 도심 주변에 동배리오와 인접하여 전통적인 차이나타운, 도심 서쪽의 올림픽과 월셔대로 사이의 코리아타운을 포함하여 형성되어 있다. 도심 동쪽으로는 차이나타운과 인접하여 외곽으로 몬터레이 파크(Monterey Park), 산가브리엘 벨리(San Gabriel Valley)까지 확장하여 동양계의 집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도심 주변의 이들 집중지역은 주거비가 저렴하여 가난한 동양계 이민자들의 주요 정착지로 알려져 있으나, 산가브리엘 벨리는 최근 들어 대만계를 주축으로한 동양계 이민집단이 집중하는 곳으로 '작은 대북'(Little Taipei) 또는 '중국 비버리힐스'(Chinese Beverly Hills)라 칭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동양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여 새로운 동족경제를 형성하며 차이나타운과 대조를 이루는 중상층의 주거집중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Horton, 1992; Tseng, 1996). 이밖에 남동부와 남부 지역에 국가집단별로 구분되어 소규모의 집중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대도시지역의 주거집중지역은 전통적인 배리오,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이 도심 주변에 형성되어 언어구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층 상승에 한계를 지닌 최초 이민자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하며, 외곽지역에 소규모로 형성된 집중지역은 비교적 높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가진 이민자들을 흡입하여 정착지를 제공한다. 즉, 동일 집단의 집중지역들 간에도 계층 격차가 발견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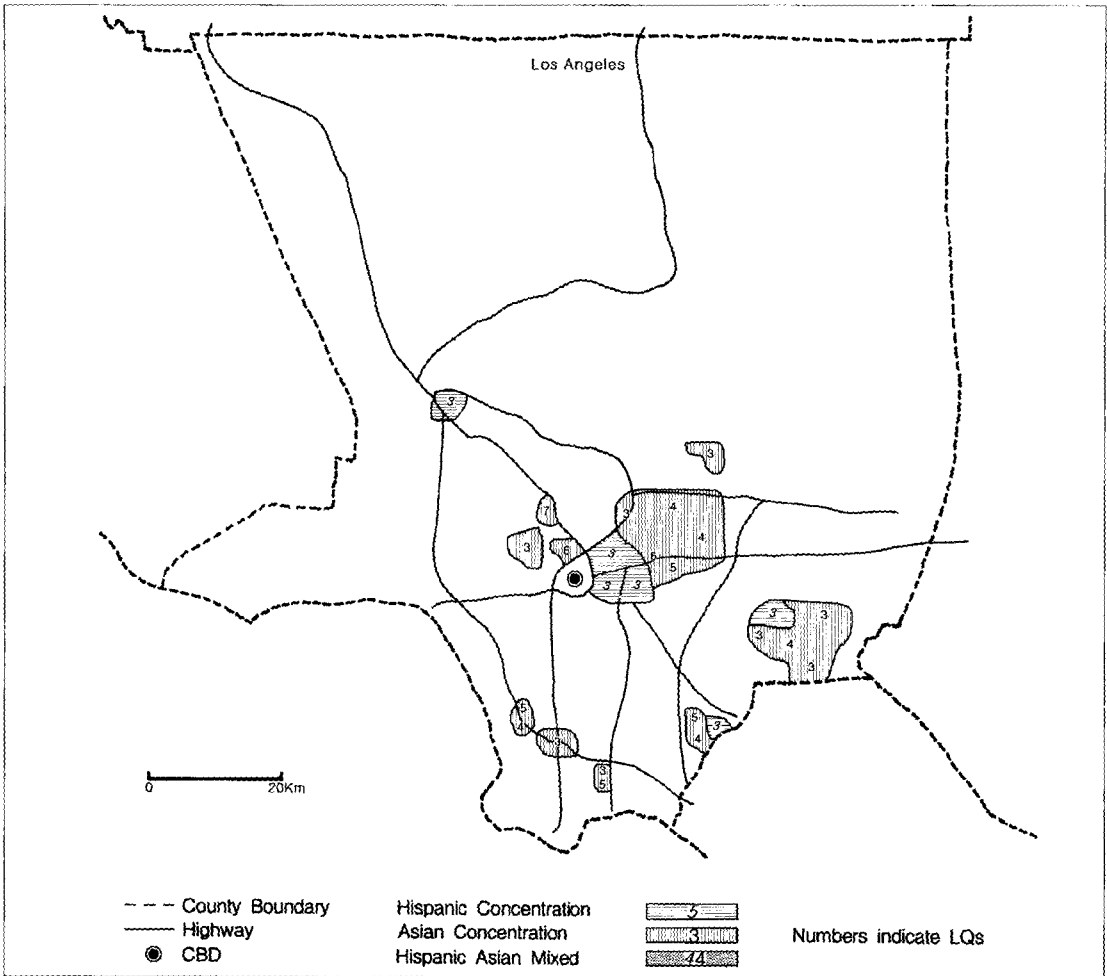


그림 1.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이민집단 집중지역

뉴욕 대도시지역 (그림 2): 중남미계, 동양계의 집중지역은 공간적으로 뚜렷이 분리하여 분포하며, 주로 뉴욕시의 외곽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차이나타운(chinatown)이 도심 근처에 밀집 지역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그 북쪽으로 인접하여 중남미계 밀집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맨하튼, 브루클린고, 그리고 배터리 터널을 지나 도심과 쉽게 연결되는 브루클린에도 중남미계와 동양계가 맨하튼으로부터 확장하여 인접하며 집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도심 주변의 이민집단 집중지역에서는 봉제업으로 대표되는 비공식부문의 제조업 분야 활동이 이민노동력을 이용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assen, 1988). 중남미계의 경우 뉴욕

카운티(맨하튼) 북단과 브롱스 남단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브롱스카운티 남단은 맨하튼 북부의 할렘과 연계된 지역으로 거주자의 반정도만이 노동에 참가하고, 미혼모 가정의 비율이 27퍼센트를 보이는 대표적 빈곤지역으로 피폐화된 경관의 특징 잘 보여주고 있다(Soja, 1991). 이 지역은 중남미계의 수적인 증가로 단일 집단지역의 성격을 가지며 저계층 근린지역(underclass neighborhood)으로 중남미계 슬럼을 형성되고 있다. 브롱스의 주요 집중지역과 더불어 소규모의 중남미계 집중은 킹스(브루클린)와 퀸스의 경계지역에서도 관찰되는데, 이 지역은 브루클린이 제조업으로 번창할 때의 노동자 주거지역으로 백인이 떠난 오래된 피폐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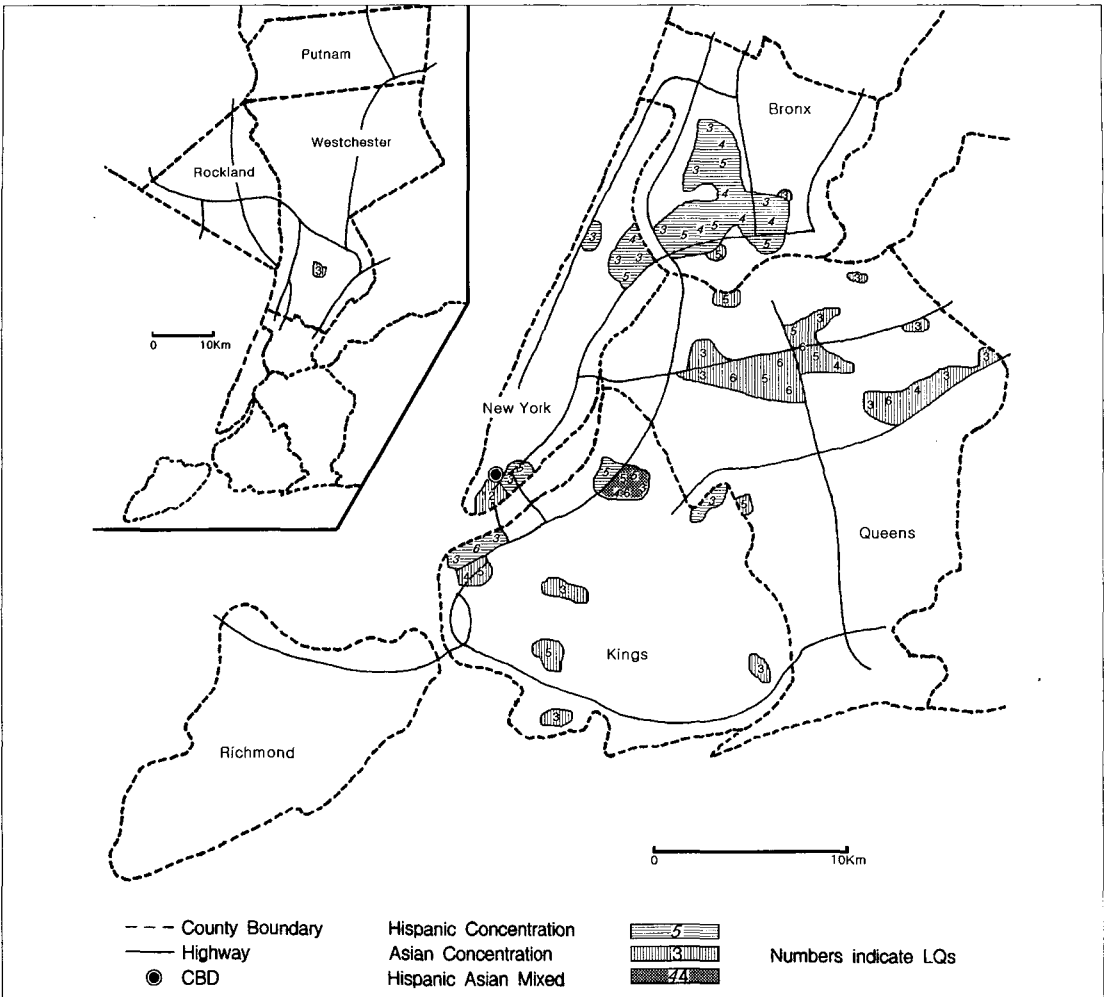


그림 2. 뉴욕 대도시 지역의 이민집단 집중지역

주거지역에 흑인과 더불어 집중 거주하고 있다 (Warf, 1990).

동양계의 집중지역은 퀸스카운티, 특히 플러싱 (Flushing)에 지배적으로 나타나 두 번째의 차이나타운(Second Chinatown), 작은 대북(Little Taipei), 또는 작은 서울(Little Seoul)로 불리는 '플러싱의 동양화' (Asianization of Flushing)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mith, 1995; Alba et al, 1995). 플러싱은 최근 뉴욕시의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4배나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동양계가 최초로 이 지역에 정착한 것은 1960년대 중반의 세계박람회 치러진 이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맨하튼 및 외국으로부터의 급작스런 동양

계 이민집단의 유입과 더불어 동양계 자본의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이곳 주민과의 면접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플러싱을 정착지로 선택한 이유로 취업기회, 접근성, 주거비용의 적절성 등의 순으로 들고 있다(Smith, 1995). 가장 밀집된 플러싱과 더불어 서쪽으로 인접하여 아스토리아, 썬사이드지역까지 집중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롱아일랜드와 인접한 지역에도 또 다른 집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고소득 백인지역으로 알려진 웨체스터카운티와 킹스카운티에도 소규모의 집중지역이 간헐적으로 관찰된다.

뉴욕 대도시지역의 주거집중지역은 전통적인 도심의 차이나타운을 제외하고는 뉴욕시를 벗어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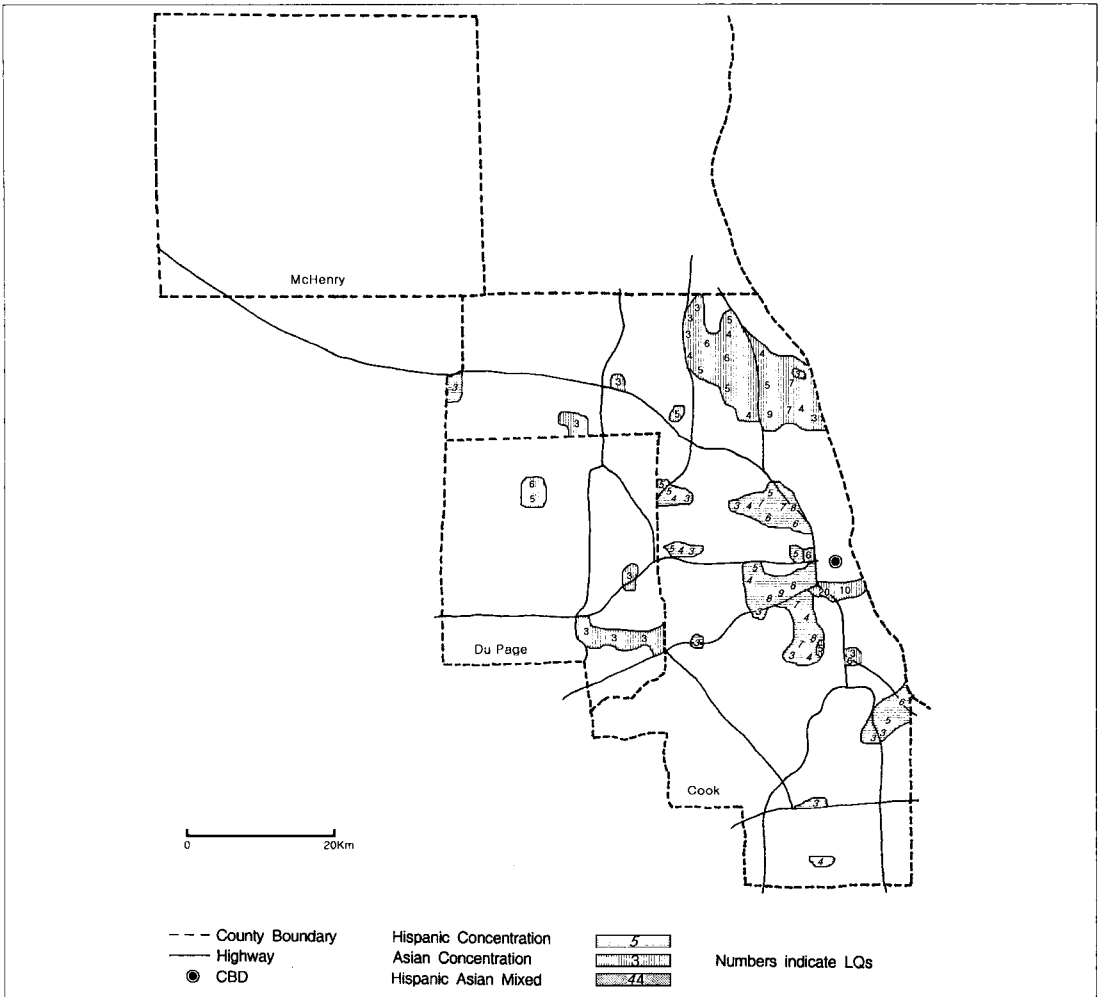


그림 3. 시카고 대도시 지역의 이민집단 집중지역

는 않지만 외곽지역에 중남미계와 동양계가 독자적인 지리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중남미계 집중의 브롱스지역은 저계층의 문제지역인 반면, 동양계가 집중된 퀸스지역의 경우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시카고 대도시지역 (그림 3):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주거집중지역이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형성되어 뉴욕 대도시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대규모 집중지역은 도심 주변과 외곽지역에서 나타나 쿡카운티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규모의 집중지역은 중남미계의 경우 도심과 인접하여 부채꼴형으로 확대되어 있고, 동양계의 경우 북부의 외곽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소규모의 집중지역은

동양계의 경우 도심의 남쪽 주변에 차이나타운을 포함한 집중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 서쪽에 또 다른 소규모의 집중지역이 보여진다. 중남미계의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집중지역이 나타나는데, 듀페이지 카운티와의 경계지역과 남부 쿡카운티지역이 그곳이다. 동양계의 소규모 집중거주지역은 듀페이지 카운티 중앙부, 남동부, 북부에 걸쳐 분산, 독립되어 형성되어 있다.

중남미계의 집중지역은 도심으로부터 외곽으로 확장되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멕시코계 노동자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오며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주거지는 도심 북쪽의 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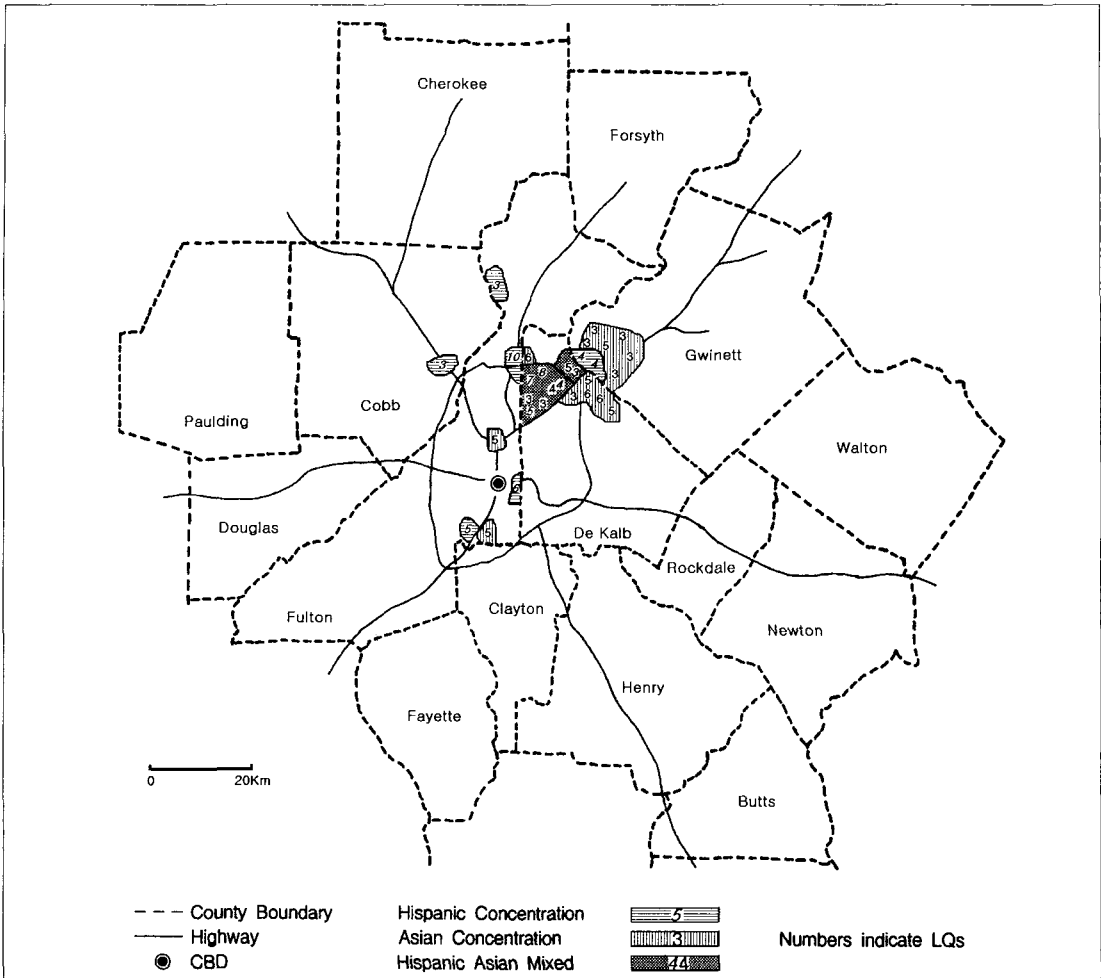


그림 4. 애틀란타 대도시 지역의 이민집단 집중지역

도심 남쪽의 흑인 집중지역 사이에서 확장된 형태를 보이며 기존 집단과는 상당히 분리된 주거양상을 나타낸다(Howenstine, 1996; Betancur *et al.*, 1993). 동양계는 비교적 최근에 증가한 이민집단으로 도심 남서쪽의 전통적인 소규모 차이나타운을 제외하고는 도심 주변에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북쪽에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하며 거주집중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시카고지역으로의 동양계 이민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어 이미 형성되어 있던 도심 주변의 흑인, 백인, 그리고 중남미계 집중거주지역과는 다른 지역에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들 북부의 집중지역은 다른 대도시지역과 유사하게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보이는 동양계 집중

지역으로서 도심 주변의 차이나타운과 그 주변 거주지역과는 구별된다.

애틀란타 대도시지역(그림 4): 이 지역은 15개의 카운티를 포함하여 그 외곽 경계는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와는 달리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획되어 있다. 중심카운티인 폴턴, 드캘브, 코브, 그윈넷, 그리고 클레이튼이 도시지역을 형성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대도시지역 단위로 보면 애틀란타 이민집단의 주거집중은 비교적 도심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대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주요 집중지역이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 애틀란타의 인종, 민족별 구성은 흑인과 백인의 양대 구



도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신이민집단이 크게 증가하여, 1980년대부터 복잡한 인종, 민족별 구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내 기타 지역 및 외국으로부터의 신이민집단의 유입은 최근의 경제 번영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로스엔젤레스, 뉴욕 등과 같은 기존의 대도시지역처럼 산업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도시이민집단 지역이 나타나지 않고 외곽지역으로의 도로 주변에 이민집단의 집중지역들이 연계되어 발견된다.

중남미계의 집중지역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였는데, 북부 드켈브의 챔벌리와 도러빌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은 애틀란타의 주요 산업지대로 GM공장, 정유·화학공장, 물류센터들이 위치하고 있어 취업기회가 풍부하고 또한 대규모의 오래된 아파트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이민자들의 정착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북부 드켈브 지역은 기존의 중남미계와 더불어 새로이 정착하는 동양계 이민집단도 급증하고 있어 애틀란타의 차이나타운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민집단들의 문화경관들이 버포드 고속도로(Buford highway)를 따라 관찰된다. 이 도로는 '애틀란타의 국제대로'(Atlanta's international boulevard)로 일컬어진다. 소규모의 집중지역은 도심 남부에 나타나는데, 흑인지역에서 중남미계지역으로의 전이가 경험되고 있다. 북서부 코브카운티 지역은 록히드공장이 위치하여 대단위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었으나 공장이 폐쇄된 이후 낮은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이민집단을 흡인하고 있다.

### 3) 신이민집단의 취업과 주거양상

선정된 4개 대도시지역에서 살펴본 중남미계와 동양계의 취업분야와 주거집중 양상은 도시별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 유럽계 이민자들이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제조업 분야에 집중·고용되었다면 신이민집단들은 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취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비내구재분야는 값싼 이민노동자들에게 의존하여 상품 회전이 빠른 의류나 전자제품 등을 소규모 하청생산방식을 통하여 생산함으로써 도심 입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낮은 교육과 기술수준을 가진 이민노동자들에게 취업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집중거주지역은 일종의 동족경계로 기능하여 여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소규모 하청생산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어 전통적인 도심의 이민집단 주거지역에서 생산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증가추세의 서비스업종은 대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교육과 기술수준을 습득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에 흑인집단은 고용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자들은 내부적으로 이중화된 속성을 보여 상층의 신 이민자들은 전문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이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지역에서의 이민집단 주거양상은 도심지역과 더불어 외곽지역에 집중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남미계와 동양계는 보편적으로 같은 지역에 공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애틀란타를 제외한 다른 세 도시의 도심 인근의 하위민족 집중지역은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어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던 시절에 형성된 집단 주거지역이다. 이들 전통 산업도시의 도심 인근 집중지역은 최근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비공식적인 제조업과 동족경계가 임지하여 새로운 형태의 주거산업지역으로 기능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에도 교육수준이 낮고 영어사용이 불편한 새로운 하층의 이민자들을 수용하여 하청 수요를 충당하고 있으며, 동족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다수 분포하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다. 외곽지역의 집중지역은 도심과 격리된 주변 취업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애틀란타의 경우 다양한 이민자 유입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최근 많은 신이민자를 수용하며 거주집중지역은 전통적인 산업도시처럼 도심 주변보다는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발달시키고 있다. 특히 이는 동양계 이민집단의 주거지 형성에서 확인되는데 적절한 기술과 교육수준을 가진 신이민자들이 도시 외곽지역에서 고용기회를 획득하며 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외곽의 집중지역은 도심 주변의 집중지역으로부터 이주하는 이민집단을 수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증가추세의 신이민자들이 곧바로 외곽지역에 정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 5. 요약 및 결론

미국의 대도시지역들은 근간에 들어 산업재구조화와 더불어 대규모의 이민집단을 수용하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산업재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로 특징 지워지며 이에 따른 도시지역 간 혹은 도시지역 내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새로이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중남미계와 동양계 이민집단의 취업과 주거를 통한 적응양식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스엔젤레스, 뉴욕, 시카고, 그리고 애틀란타를 선정하여 이민집단의 취업과 주거 적응양식을 산업재구조화와 연계시킨 접근을 시도하였다. 산업재구조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인 제조업의 쇠퇴는 북동부의 공업지대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며, 남부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북동부로부터 이주하는 제조업을 수용하며 성장하고 있다. 도시지역내에서는 제조업의 외곽 이전을 통한 비용의 감소, 또는 하청생산방식을 통하여 기존의 도심 입지에서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도심에 입지하여 활동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의 경우 외곽화의 성향을 보이며, 도시간 그리고 도시내 산업·공간구조의 다양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조업의 감소에 있어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로스엔젤레스와 애틀란타는 스노우벨트와 썬벨트라는 지역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증가는 모든 대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신이민집단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분야에 취업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소매업에서 비교적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의 신이민집단이 낮은 교육수준과 농촌배경을 가진 동질적인 값싼 노동력으로 정형화되었던 유럽계 구이민집단과는 달리 집단간 및 집단 내부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거양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구이민집단의 경우, 대다수가 도시의 제조업중에서 취업기회를 제공받아 도심 주변에서 집중주거지역을 형성하는 형태를 보였다면, 신이민집단의 경우,

취업기회의 공간상의 변화와 더불어 집중주거지역 또한 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심 주변의 대규모 이민집단 주거집중은 전통적인 산업도시인 로스엔젤레스, 뉴욕, 그리고 시카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주거역할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민족 고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족경제공간 그리고 하청방식을 통한 변형된 생산방식의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생산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틀란타와 같이 새로운 이민집단의 정착지로 등장한 도시지역은 대규모의 집중주거지역이 외곽에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적응패턴이 후기산업사회의 도래에 따른 변모한 공간구조가 반영되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이민집단의 적응양태는 산업재구조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 그리고 공간상의 변화에 따른 주거지 형성으로 기존 산업도시에서의 이민집단 취업·주거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별로 나타나는 다양성은 지역맥락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註

- 1) 1965년의 이민법 개정은 출신국별 할당과 동양계의 배제를 폐지하고 세계의 모든 각 나라에 20,000명의 이민자수를 할당하였다. 이민자격은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가족, 그리고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소지한 자에게 주어졌다.
- 2) 이 연구에서는 'majority'와 'minority'를 지칭하는 용어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대신 '상위집단(上位集團)'과 '하위집단(下位集團)'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그 구분의 근거가 단순히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 3) 상세인구표본조사는 개인별로 기록된 상세한 주택과 인구특성자료를 제공하는 센서스로 5%와 1%의 표본이 컴퓨터태입이나 Compact Disk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 4) 동양계와 태평양군도계는 1980년의 인구조사자료에 합계로 나타나 1990년 인구조사자료의 경우 동양계와 태평양군도계를 합산하였다.
- 5)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의 경우 중남미계, 흑인, 동양계를 합치면 다수의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카고와 애틀란타의 경우도 위의 자료에 나타난

- 인구 증가가 지속된다면 백인이 다수집단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상황이 예견된다. 인종·민족집단별 인구구성의 차이에 따른 집단간의 갈등에 대하여는 Olzak and Nagel (1986)을 참조.
- 6) 높은 자영업 종사에 관한 연구는 동양계의 경우 중국계, 한국계에 대한 연구, 중남미계의 경우 쿠바계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쿠바계의 경우 마이애미에 지배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지역에서는 중남미계 전반에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 7) 여기에 부연할 것은 집단간의 취업분화(ethnic division of labor)를 논하기 위하여는 전체의 산업분야 구성을 백인집단을 위시하여 기타 각 집단별로 구분하여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중남미계와 동양계만을 분리하여 각 산업별 분포를 정리하여 전체 인구의 산업별 구성 분포와 비교하였다.
  - 8) 입지계수는 다음의 등식을 사용하였다:  $LQ = (\text{tract별 해당 이민집단의 인구수} / \text{tract별 총인구수}) / (\text{대도시지역 전체 해당 이민집단의 인구수} / \text{대도시지역 전체 인구수})$ . 이는 각 이민집단이 전체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 9) 하위민족집단의 집중적 분포로 인해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지역을 일컫는 게토(ghetto)와 유사한 개념으로, 게토가 주로 흑인집단의 집단주거지역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비해 중남미계 집단의 집중주거지역을 한정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 10) 미국센서스의 지역구분기준 (US Census of Population, 1993, Appendix A)에 따른다면 인구규모가 큰 카운티의 경우 중심도시를 형성하고 있으면 독립적인 대도시지역으로 구분시키는데, 애틀란타의 경우는 1990년 현재 외곽 카운티가 인구규모가 50만 이상인 중심도시를 가지지 못하여 애틀란타 대도시지역으로 구획되어 있다.

## 文 獻

- Alba, R., Denton, N., Leung, S. and Logan, J., 1995, Neighborhood change under conditions of mass immigration: the New York City Region 1970-1990,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625-656.
- Albrechts, L. and Swyngedouw, E., 1989, The challenges for regional policy under a flexible regime of accumulation, In L. Albrechts et al. eds., *Regional Policy at the Crossroads*,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cation, 67-89.
- Allen, P. and Turner, E., 1996, Ethnic diversity and segregation in the New Los Angeles, In Curtis Roseman et al., eds., *EthniCity: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Ethnic Change in Modern Citie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1-29.
- Beauregard, Robert, 1991, Capital restructuring and the new built environment of global cities: New York and Los Angel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5, 90-105.
- Betancur, John, Cordova, T. and Torres, M., 1993,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process of incorporation of latinos into the chicao economy, In R. Morales and F. Bonilla, eds., *Latinos in a Changing US Economy*,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09-132.
- Clark, William, 1996, Residential patterns: Avoidance, assimilation, and succession, In Roger Waldinger and Mehdi Bozorgmehr, eds., *Ethnic Los Ange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09-138.
- Dicken, Peter,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Espenshade, Thomas and Hempstead, Katherine, 1996,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0, 535-570.
- Ettlinger, Nancy and Kwon, Sangcheol, 1994, Comparative analysis of US urban labor markets: Asian Immigrant Group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85, 417-433.
- Gaffikin, Frank and Warf, Barney, 1993, Urban policy and the Post-Keynesian State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9, 67-84.
- Hartshorn, Truman and Muller, Peter, 1989, Suburban downtowns and the transformation of metropolitan Atlanta's Business Landscape, *Urban Geography*, 10, 375-395.
- Hernandez, Jose, 1985, Improving the data: a Research Strategy for New Immigrants, In L. Maldonado and Joan Moore eds., *Urban Ethnicity in the U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01-119.
- Henry, Charles, 1994, Urban politics and incorporation: the case of blacks, Latinos, and Asians in three cities, in James Jennings, ed.,

- Blacks, Latinos, and Asians in Urban America*, Westport, Praeger, 17-27.
- Horton, J., 1992, The politics of diversity in Monterey Park, California, In Louise Lamphere, ed., *Structuring Diversity: Ethnographic Perspectives on the New Immigr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5-245.
- Howenstine, Erick, 1996, Ethnic change and segregation in Chicago, In Curtis Roseman, et al., eds., *Ethnicity: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Ethnic Change in Modern Citie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31-49.
- Johnson, James, Jr. and Oliver, Melvin, 1992, Structural changes in the US economy and black male joblessness: a reassessment, in George Peterson and Wayne Vroman, eds., *Urban Labor Markets and Job Opportunity*,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13-147.
- Kanjanapan, Wilawan, 1995, The immigration of Asian Professionals to the United States: 1988-1990,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7-32.
- Kasarda, J., 1989, Urban industrial transition and the urban underclas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01, 26-47.
- McLafferty, Sara and Preston, V., 1992, Spatial mismatch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for African-American and Latino Women, *Economic Geography*, 68, 406-431.
- Moore, Joan and Vigil, Diego, 1993, Barrios in transition, In Joan Moore and Raquel Pinderhughes, eds., *In the Barrios: Latinos and the Underclass Debat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7-49.
- Morawska, Ewa, 1990, The sociology and historiography of immigration, in V. Yans-McLaughlin, ed., *Immigration Reconsidered: History, Sociology, an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87-238.
- Noyelle, Thierry and Stanback, Thomas, Jr., 1984, *The Economic Transformation of American Cities*, Totowa, Rowman and Allanheld Publishers.
- O' Hare, William, 1992, America's minorities; The demographics of diversity, *Population Bulletin*, 47,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Inc.
- Ong, Paul; Bonacich, Edna; and Cheng, Lucie, 1994, restructuring and the new Asian immigration, In Paul Ong, et al., eds., *The New Asian Immigration in Los Angeles and Global Restructuring*,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3-35.
- Ortiz, Vilma, 1991, Latinos and industrial change in New York and Los Angeles In *Hispanics in the Labor Force: Issues and Policies*, New York, Plenum Press, 119-132..
- Piore, M. and Sabel,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 Portes, Alejandro and Rumbaut, Ruben, 1988, *Immigrant America: a Portrai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theiser, Charles, 1996, *Imagining Atlanta: the Politics of place in the city of dreams*, London, Verso.
- Sassen, Saskia, 1990,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American 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465-490.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bragia, Alberta, 1989, The Pittsburgh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 Responsiveness, and indifference, in Gregory Squires, ed., *Unequal Partnerships*,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03-120.
- Scott, Allen, 1996, The manufacturing economy: Ethnic and gender divisions of labor, in Roger Waldinger and Mehdi Bozorgmehr, eds., *Ethnic Los Angel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15-244.
- Smith, Christopher J., 1995, Asian New York: the geography and politics of divers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 59-84
- Soja, Edward, 1991, Poles apart: Urban Restructuring in New York and Los Angeles, in J. Mollenkopf and M. Castells, eds., *Dual City: Restructuring New Yor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361-375.
- Soja, Edward, 1989,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 London, Verso.
- Tseng, Yen-fen, 1994, Chinese ethnic economy: San Gabriel Valley, Los Angeles County, *Journal of Urban Affairs*, 16, 169-189.
- US Bureau of the Census, 1983a, 1993a, *Census of Population 1980, 199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 US Bureau of the Census, 1983b, 1993b, *County Business Patterns 1980, 199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 US Bureau of the Census, 1993c, *Public Use Microdata Sample 199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 Waldinger, Roger, 1996, *Still the Promised City? African-americans and New Immigrants in Postindustrial New York*,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dinger, Roger, 1989, Immigration and urban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211-232.
- Warf, Barney, 1990,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ecology and neighborhood change, in Brookly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pace and Society*, 8, 73-96.
- Yoon, In-jin, 1995, The growth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hip in Chicago, *Ethnic and Racial Studies*, 18, 315-335.